

## - 내러티브 저널

성결대학교 교육대학원  
연극영화교육전공  
20243081 홍소리

### 1. 낯설었던 첫 시작

교육실습 첫날은 학생들과 처음 인사를 나누고 학교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익히는 시간이었다. 처음 교실에 들어갔을 때는 학생들보다 내가 더 긴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습생이라는 신분으로 교실에 서 있었지만 앞으로 교사가 될 사람이라는 책임감도 함께 느껴졌다. 학생들은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네주었고, 그 덕분에 긴장을 조금 덜 수 있었다.

첫날에는 수업보다는 학교 시스템과 실습 일정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이 많았다. 하지만 교실에 앉아 학생들을 관찰하면서 교사는 단순히 수업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교생활 전체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의 실습 기간 동안 학생들을 얼마나 이해하게 될지 기대가 되었다.

### 2. 좋은 교사란 무엇일까

교장선생님의 연수에서 '애정 어린 눈을 가진 교사'라는 말을 들었다. 처음에는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지만 실습이 진행될수록 그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 학생들은 생각보다 교사의 작은 말과 행동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느꼈다. 수업을 잘하는 교사도 중요하지만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교사가 더 오래 기억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 역시 앞으로 학생들의 가능성을 먼저 바라보는 교사가 되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다.

### 3. 활동 중심 수업의 힘

연극놀이 수업을 참관하면서 학생들의 참여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명을 듣고 필기하는 시간보다 직접 몸을 움직이고 표현하는 활동에서 학생들은 훨씬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특히 언어 없이 몸으로만 감정을 표현하는 활동이 인상적이었다. 학생들은 처음에는 부끄러워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자신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표현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예술교육은 학생들이 자신을 발견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꼈다.

### 4. 질문이 있는 수업

행동동사 수업을 참관하면서 좋은 수업은 교사가 많이 설명하는 수업이 아니라 학생들이 많이 생각하는 수업이라는 것을 배웠다. 같은 대사를 가지고도 행동동사에 따라 전혀 다른 장면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흥미로웠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교사가 학생들의 해석을 쉽게 정답이나 오답으로 구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학생들의 생각을 존중하며 더 깊게 탐구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는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나도 언젠가 학생들에게 답을 알려주는 교사보다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교사가 되고 싶다.

### 5. 작품을 현재와 연결하기

오디푸스 왕 수업에서는 희곡을 단순히 이해하는 것을 넘어 현재 사회와 연결해 생각해 보는 활동이 이루어졌다. 학생들은 작품 속 운명이라는 주제를 자신의 삶과 현대 사회에 적용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같은 작품을 읽고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모습을 보며 예술에는 하나의 정답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느꼈다. 교사는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었고, 그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 6. 수업을 준비한다는 것

브레히트와 낯설게 하기 이론 수업을 준비하면서 교사의 고민이 얼마나 많은지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학생들에게 어떤 내용을 가르칠 것인가보다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가 더 어려운 문제라는 사실을 느꼈다.

지도안을 작성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입장에서 계속 생각하려고 노력했다. 내가 이해한 내용을 학생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활동을 구성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만큼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 7. 첫 수업 시연

드디어 브레히트 수업을 진행하는 날이 되었다. 수업 전까지 긴장이 컸지만 막상 시작하고 나니 학생들의 반응에 집중하게 되었다.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을 보며 조금씩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수업을 마치고 나서는 아쉬움도 남았다. 더 좋은 질문을 할 수도 있었고 시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완벽한 수업보다는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수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 8. 학생들의 고민을 듣다

실습 기간 동안 학생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특히 진로와 연기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는 학생들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다. 학생들은 겉으로는 밝아 보여도 각자만의 고민을 안고 있었다.

한 학생과 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사는 답을 주는 사람이라기보다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학생의 고민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9. 교실 밖에서 배우는 것들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은 학생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 수업 중에는 보이지 않던 학생들의 모습과 관심사를 알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며 느낀 것은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작은 관심에서 시작된다는 점이다. 먼저 말을 걸고 관심을 보일 때 학생들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학급경영은 특별한 기술보다 진심 어린 관심에서 출발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 10. 실습을 마무리하며

실습 초반에는 좋은 수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습을 마무리하는 지금은 학생을 이해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교사는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인 동시에 학생들의 성장을 함께 지켜보는 사람이라는 것을 배웠다.

이번 교육실습을 통해 수업 운영 방법뿐만 아니라 학생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게 되었다. 특히 연극영화과 학생들과 함께하며 예술교육이 학생들의 표현력뿐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는 힘을 길러준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 교사가 된다면 학생들의 가능성을 믿어주고, 학생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교실을 만들고 싶다. 이번 실습은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내가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지 고민하게 만든 소중한 시간이었다.